

# FIFA와 아벨란제가 월드컵을 훔쳐갔다

《누가 월드컵을 훔쳤나?》에 나타난 월드컵 상업주의

이제 며칠 있으면 월드컵이 개막된다. 세계의 눈이 한일 월드컵으로 쏠리고, 세계적인 축구스타들이 한국과 일본의 그라운드를 누빌 것이다. 그러나 월드컵 공동 개최가 결정되기 전인 1996년만 해도 한국이 월드컵 공동개최자가 되리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당시 FIFA(국제축구연맹)의 회장이었던 후안 아벨란제가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는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월드컵 공동개최가 발표될 당시 TV를 통해 정몽준 한국 축구협회 회장이 FIFA 위원들을 만나고 로비하는 광경을 지켜본 많은 한국 국민들은 궁금했을 것이다. FIFA 최고 권력자 아벨란제는 왜 그렇게 월드컵 한국 개최를 반대했을까? 그러면서 그가 노골적으로 일본을 지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 금권에 휘둘린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결정 과정

FIFA 출입기자 출신의 데이비드 오픈 이 쓴 《누가 월드컵을 훔쳤나?》(이창식, 창조집단시빌구)에는 그 내막이 자세하게 서술돼 있다. 국가간의 복잡한 이해구조, FIFA 내부의 권력관계 등 많은 요소가 작용하고 있었지만 아벨란제를 그렇게 오만하고 고집스럽게 만든 것은 돈이었다. 1982년 이후 월드컵 등 여러 스포츠 행사에 대한 마케팅과 중계권을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아벨란제의 돈줄인 국제스포츠레저(ILS)지분 49%를 일본 광고기업 덴츠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다. 1980년대부터 덴츠는 월드컵 총수입의 50%를 이익으로 챙겨오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니 2002년 월드컵을 일본에 안겨주려는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몽준은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던 200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을 둘러싼 문제에서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나는 한국이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게 된다면 대회의 수익금 전액을 축구계에 환원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수익금의 10퍼센트는 FIFA로 나머지 90퍼센트는 여러 축구연맹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로써 아벨란제는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아벨란제는 FIFA 위원들에게 신임을 잃었다. 그가 축구왕국의 권좌에서 물러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도 바로 이 200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이었다.

이 책은 1974년 회장직에 올라 1998년 물러날 때까지 24년 동안 월드컵을 ‘축구잔치’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바꾸어버린 ‘태양왕’ 아벨란제에 관한 것이다. 지은이는 전 FIFA 회장 아벨란제가 ‘F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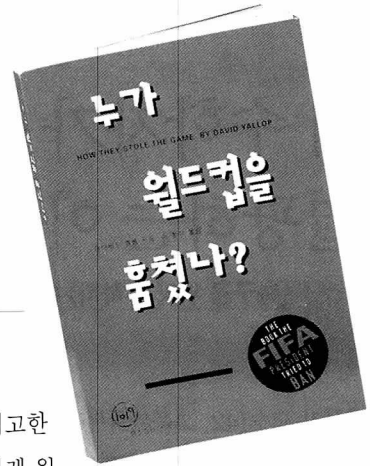
the Good of the Game’ (지고한 경기를 위해서)라는 구호 아래 월드컵을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파헤치면서 월드컵을 둘러싼 폭력과 승부조작, 개최국 선정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목적 등을 밝힌다.

##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당한 월드컵 정신

지은이는 아벨란제가 FIFA에 들어가기도 전인 1971년부터 회장직을 향해 뛰며 FIFA 사상 처음 금권선거를 도입한 인물로 꼽는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유복한 집에서 태어난 아벨란제는 수영선수로 운동 세계에 뛰어 들었다. 1958년 브라질 스포츠 연맹 회장이 되면서 그는 축구와 인연을 맺는다. 아벨란제는 미래의 축구영웅 펠레를 대표로 선발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펠레를 선거에 이용했다. 10표뿐인 남미 지지로는 안정권 60표를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1971년 선거전에 뛰어들자마자 펠레와 함께 아프리카를 여행했다. 펠레 덕에 항공권 등 독일 프랑크푸르트 FIFA 총회 경비 일체를 제공받는 전략이 한몫을 단단히 했다. 선거 재원 조달을 위해 횡령 등으로 그가 브라질 스포츠연맹에 끼친 손실은 1천만 달러가 넘었지만 FIFA 회장에 당선되자 국가적 망신을 우려해 브라질은 그를 기소하지 못했다.

1994년 약물 복용 혐의를 받고 출전을 금지당한 마라도나의 경우는 FIFA의 승부조작 혐의를 더욱 짙게 한다. FIFA는 미국 월드컵 때 뛰어난 축구영웅의 부채를 염려했다. 그들은 마라도나에게 어떤 검사결과가 나오더라도 눈감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마라도나도 이 대회에서 자신의 모든 기량을 발휘했다. 그러나 그것은 브라질에 우승을 안겨주려는 FIFA의 계획과 어긋난 것이었다. 결국 FIFA는 약물복용을 문제삼아 마라도나의 출전을 금지시켜버렸다.

지은이는 “많은 나라에서 관중들은 이제 현대적으로 지어진 스타디움에서 의자에 앉아 22명의 억만장자 축구선수들에게 갈채를 보낼 기회가 생겼다. 많은 주요 클럽들의 운영이 이제 관중 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주주들에게 투자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며 과도한 상업주의로 변모한 월드컵을 꼬집는다. “축구는 고결함과 정직함의 표상이었고, 윤리와 교훈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아니다. 그들은 축구를 맛아가버렸다. 그들은 축구를 훔쳐갔다.” —김장근기자



창조집단시빌구/A6신/406면/9500원